

Practitioner's Notes

번역가의 글쓰기(Translation and Writing)

— Keynote speech at the 5th GSTI International Conference

정 호 영(Hoyoung Chung)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이번 대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번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보탬이 될 듯합니다. 저 자신을 학자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만큼 학술대회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역할을 규정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실제로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번역은 이래야 한다는 어떤 당위를 주장하거나 논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제 경험이나 느낌을 묘사하는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번역자 다수를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은 제가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수에 속하느냐 소수에 속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겠지요. 번역이 다수결로 무엇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닐 터이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그저 현장에서 번역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야기 정도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한 척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번역 방식을 하나의 당위로 제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 나아가서 그런 당위를 제시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비관적으로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저런 번역 방식을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

히려 어떤 번역자가 이런 저런 번역 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선택이 이미 번역자 안에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번역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가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미 자기 안에 주어진 것을 정당화하는 말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번역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번역의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과대망상일지는 모르겠지만, 번역은 기본적으로 타자와 매우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행위이며, 그렇기 때문에 번역에는 번역자가 한 인간으로서 타자와 관계를 맺는 일반적 방식이 반영되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령 번역을 하는 방식을 바꾸려 한다면, 또는 다른 번역 방식을 선택하려 한다면, 단지 번역 차원이 아닌 상당히 깊은 수준에서 뭔가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겠죠.

‘나’의 글쓰기

마음의 부담을 덜어보려고 장황하게 전제를 깔았지만, 부담이 떨어지는 느낌은 잠시 일 뿐 실제로 번역과 글쓰기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앞에 놓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내가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글쓰기라고 생각했느냐?”라고 자문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 전 일입니다만, 어떤 번역가가 사석에서 자신은 번역을 글쓰기의 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확고한 태도에 감명을 받고 또 그 태도를 존중하기는 했지만, 저 또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나오는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은 그 뒤로 지금까지 쭉 제 머릿속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 분과 같은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금세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달랐기 때문에 저 자신이 번역하는 방식을 늘 의식하게 하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는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매혹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나와 다르기는 하지만, 나도 그런 쪽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선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늘 자문해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여기서 글쓰기라는 말의 의미를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역도 어차피 글로 쓰는 것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글쓰기라고 한다면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셈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저한테 그 말을 하신 분은 아마 번역이 ‘나’의 글쓰기의 한 방식이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와서 그 분이 어떤 의도로 말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명제이니깐요. 어쨌든 저는 그 분이 번역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글쓰기의 일환으로 생각한다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글쓰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번역이 ‘나’의 글쓰기라는 쪽으로는 생각이 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제 경우에는 별 것 아니지만 ‘나’의 글을 쓸 때, 예컨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글을 쓸 때, 심지어 역자 후기를 쓸 때도 번역을 할 때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 두 가지가 통일되기 힘든, 분리된 두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그것이 통일된 것처럼 말씀을 하신 거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저라는 피아니스트는 다른 사람이 작곡한 작품의 악보를 간신히 피아노 소리로 바꾸어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떤 피아니스트는 똑같이 다른 사람이 작곡한 작품을 연주하면서도 자신의 연주는 작곡의 한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 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악보는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느낌이었습니.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나’의 글쓰기란 작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 번역자는 굳이 말하자면 작가보다는 배우에 가까운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번역 같지 않은 번역

사실 번역은 ‘나’의 글쓰기라는 명제는 그것이 제시하는 통일성만으로도 번역자들에게 큰 매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작업의 특성상 분열적 상태에 놓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번역다운 번역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말에서 ‘~답다’는 말을 붙이면 대체로 그 정체성의 핵심을 가리키게 됩니다. 가령 공자의 말

‘君君臣臣父父子子’를 우리는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며,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답다’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번역이 번역다워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번역이든 아니든 어떤 글을 두고 “번역 같다”고 하면 대개 비난하는 말이 됩니다. 심지어 ‘번역투’라는 말도 사용하지요. 반대로 번역을 두고 “번역 같지 않다”고 말하면 그것은 대개 칭찬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되면 번역다운 번역은 번역 같지 않은 번역이 되는 건가요? 뭔가 모순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번역을 하면서 번역 같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실로 번역자의 정체성에 분열을 일으킬 만한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번역이 ‘나’의 글쓰기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모순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번역은 ‘나’의 우리말 글쓰기이므로, 번역 같지 않은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말로 이루어진 나의 글을 쓰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순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쪽에 가깝지만, 번역을 ‘나’의 글쓰기 안에 통합함으로써 모순이 발생할 소지를 남기지 않으니 매혹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혹이 강한 만큼 반발도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능력 부족 때문이든 기질 차이 때문이든 그런 해법으로 분열적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제가 아마 그런 경우였는지 몰라도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즉 번역은 ‘번역 같은’ 것이 정상 아니냐, 따라서 진정으로 ‘번역 같은’ 번역을 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독자도 번역이라는 것을 알고 읽는데,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번역이 아니라는 가상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번역이라는 전제 위에서 번역 자체의 의미—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또 번역의 분열적 상황을 아예 무시하게 되면, 번역의 결과물이 지나치게 규격화, 보수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역 같지 않은 번역이 찬사를 받아 번역이 아니라는 가상의 느낌을 만드는 데 주력하게 되면, 번역은 ‘번역 냄새가 나지 않는, 매끄럽게 잘 읽히는 가독성 높은’ 글로 규격화되고 표준화되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말로 쓴 글에는 제1 요구 조건이 되기 힘

든 ‘가독성’이 번역의 결과물에는 제1 요구 조건처럼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위협의 신호일 수도 있지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규격에 미달할 경우, 또는 어떤 틀을 비집고 나오려 할 경우에는 이른바 ‘윤문’(潤文)을 거쳐 규격품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A라는 번역자가 번역한 것과 B라는 번역자가 번역한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A와 B의 차이가 있다면 규격에 얼마나 접근했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그 차이는 또 그 방면의 전문가가 얼마든지 메울 수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번역은 번역이라는 동어반복

상당히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그림의 예를 참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림이 눈에 보이는 풍경이나 정물을 똑같이 묘사하는 것 자체를 중시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그림을 두고 “진짜 같다”, 즉 “그린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큰 찬사였겠지요. 따라서 화가는 ‘그린 것 같지 않은’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려는 노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다 보면 혹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버리는 그림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림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역전이 벌어지면서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 “그림 같다”는 말도 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그림에서 한 걸음만 나아가면 이발소에 걸린 풍경화, 즉 어떤 규격에 맞추어 찍어낸 듯한 그림이 나왔겠지만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번역을 두고 “번역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칭찬이지만, 나중에는 번역이 아닌 글을 놓고 “번역 같다”고 말해주는 것이 칭찬으로 들릴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너무 황당할까요? 황당하기는 해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가능할 듯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번역된 글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글과는 달리 읽는 데 걸리지 않도록 매끄럽게 다듬어 놓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게다가 번역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편집자가 손을 댈 여지가 많으니 그만큼 기존의 통념이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도 넓어집니다. 따라서 번역의 경우에는 매끄럽고 반질반질하여 가독성이 좋은 글, 나아가서는 이발소에 걸린 그림처럼 규격화된 글이 위세를 떨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창작물의 경우에는 기존 언어의 구속을 뚫고 나가려는 진지한 시도가 이루어

질 경우, 가독성만 놓고 보았을 때는 외려 번역물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번역에서 위세를 떨치는 잘 읽히는 보수적인 언어가 이상적인 언어로 여겨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외로 잘 읽히는 창작소설을 두고 번역 같은 소설이 나왔다고 말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마치 어떤 풍경을 놓고 “그림 같다”고 말하듯이.

아마 그림이 자기 자리를 찾는 일은 “그림 같지 않다”는 찬사를 찬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한 화가들은 그림과 눈에 보이는 것을 동일시하려는 시도를 허망한 짓이라고 여기고, 그림은 설사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렸다 해도 어디까지나 그림일 뿐 눈에 보이는 것을 대체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림을 대체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은 그림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로 파고드는 길도 열렸을지 모릅니다. 이와 비슷하게 번역다운 번역도 번역은 번역일 뿐 번역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모순된 상황에서는 “君君臣臣父父子子”처럼 동어반복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 ‘관한’ 글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익은 번역을 합리화하기 위한 강변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면이 없는지 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매끄럽게 보이는 번역이 오히려 설익은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또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번역가가 자신은 문단 단위로 번역을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문단을 쭉 읽고 그 다음에 원문을 보지 않고 번역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문단을 암기한 다음 안 보고 한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어 대 단어 번역에 얽매이지 않고, 피상적인 것보다 이면에 있는 더 깊은 것을 포착하려 한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처럼 단어 하나를 가지고 찢찢 때는 사람에게는 가히 입신(入神)의 경지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번역 방식에서 대단히 매끄럽고 강력한 우리말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말로 잘 읽힐지언정 완전히 익은 번역

이나, 완결된 번역이나 하는 점에 관해서는 의문을 품을 여지가 있는 듯했습니다. 번역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해당 원문에 ‘관한’ ‘나’의 글이지 번역은 아니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요약이나 설명이나 풀어쓰기가 번역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아마 그런 것들은 원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연습 행위일 뿐이고, 완성된 번역은 그 다음 단계로 밀고 올라가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할 듯합니다. 따라서 보기에는 매끄럽고 이해도 쉬운 번역이 오히려 설익은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너’의 글쓰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오래 전에 들었던 ‘나’의 글쓰기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제 머릿속을 떠돌던 생각들입니다. 생각이란 것이 늘 자기 관성에 따라 흘러가기 마련이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번역을 하는 실감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생각과 실감은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면도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나’의 글쓰기와는 반대편에서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번역가는 번역을 할 때 저자가 자신에게 빙의(憑依)하는 느낌이 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입신의 경지라는 말을 이미 썼기 때문에 여기에 쓸 말을 찾아내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부럽기 짝이 없는 경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번역이라면 번역자가 저자로 변신하여 글을 쓰는 것이므로, 다시 말해서 내가 매체가 되어 너의 글을 대신 써 주는 것이므로, ‘너’의 글쓰기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빙의’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 이런 ‘너’의 글쓰기라는 입장도 드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자가 우리말로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며 번역하라는 말도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또 번역자가 투명한 유리가 되어 저자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비슷한 흐름에 속할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물론 빙의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오랫동안 이런 것이 번역의 이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향이 소중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이쪽이 제 번역 기질에 더 맞는다는 느낌이

지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번역을 하는 사람은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번역 기질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예컨대 번역자가 투명한 유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떤 이상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이 이상이 실현되었다고 느껴지면 걱정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경지에 이른 분들이 아니라면, 저자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환상에 빠진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이 이상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원죄라도 지닌 것처럼, 자신이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왜곡되고 때가 낀 유리라는 사실을 평생 속죄하며 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이 또한 분열적인 상황인 셈인데, 이것은 그냥 안고 가기가 괴로워서라도 생각을 달리 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번역하는 인간이 투명한 유리가 된다는 것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일,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환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언어라는 것이 애초에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혼자 서 있으면서 동시에 뭔가를 희미하게 비추는 흐린 거울 같은 것이라면? 사실 같은 원문이라도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번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왜곡과 때처럼 보이는 것은 흠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모습, 즉 모양과 색깔이 서로 다른 것일 뿐 엄연히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성하고 속죄할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즐기고 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구축하는 글쓰기

이렇게 되니 저는 ‘나’의 글쓰기와 ‘너’의 글쓰기를 모두 피하려고 하는 어정쩡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 계속 되풀이하듯이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번역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다만, 그렇게 둘 다 피한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나’와 ‘너’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려 한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번역이 글쓰기라고 한다면, 그 글쓰기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행위 자체 또는 그 과정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빙의’의 환상을 다른 환상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지만—사실 저는 ‘빙의’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자신의 어떤 실감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말을 빌려왔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실제로 번역을 하는 것이 저자와 저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질적으로 제 언어로 저자를 굴복시킨다는 생각을 잘 못하지요. 사실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저자에게 굴복당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식의 일방적 통일은 별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 무조건적 합일이 아니라, 둘 사이에는 흔히 말하듯이 별과 별 사이처럼 서로 너무 멀어져서 헤어지지도 않고 너무 가까워져서 합쳐지지도 않는 어떤 이상적인 거리, 그런 팽팽한 긴장과 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분들의 좋은 번역에서도 그런 긴장과 균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긴장된 거리를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텍스트를 헤집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탄생한 번역의 언어는 이상적일 경우, ‘너’의 글쓰기도 아니고 ‘나’의 글쓰기도 아닌, 저자의 언어도 아니고 저의 언어도 아닌, 또 어떤 면에서는 외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잉태된 제3의 언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